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 5 월 미 주택 가격 강세 유지
- Insider: 7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다시 회복
- Bloomberg: 연준 관리중 누가, 금리 인상 관련 이견 보이는가?

[미국 금융]

- WSJ: FDIC, 은행들에 예금 데이터 왜곡 행위 경고
- WSJ: 주식 랠리로 침체 신호 떨어 내고 있다
- WSJ: 대규모 재해 손실로 보험사들 보험료 인상 추진

[뉴욕]

- Bloomberg: 미 최고 인기 오피스는 맨해튼 미드타운?
- NYT: 테크 기업들 한때 뉴욕 경제에 활력소 였지만

[오일]

- CNBC: Goldman Sachs “사상 최고 수요로 유가 상승될 것”

[반도체]

- Bloomberg: 칩 업계, 노동력 부족으로 미국내 확장 차질 우려

[글로벌 경제]

- Bloomberg: IMF, 세계 성장 전망 상향 조정...위험성은 여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he Economist: 월마트, 식료품에서 아마존 앞서는 이유
- Bloomberg: 아마존, 사무실 복귀 위해 일부 재배치
- WSJ: TikTok “미국에서 중국산 상품 판매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Home prices stay strong in May **5 월 미 주택 가격 강세 유지**

- 지난 5월까지 4개월 연속 미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오늘 화요일 발표된 S&P CoreLogic Case-Shiller US National Home Price Index는 밝혔다.
- 5월 전국 지수는 계절적 조정 후 4월과 비교해 0.7% 상승했다. 10개 도시와 20개 도시 종합지수도 각각 1.1%와 1% 상승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계절 조정 전 전국 지수로 볼때는 4월보다 1.2% 올랐다. 5월의 상승은 7개월 연속해서 전월 대비 하락세가 중단된 2월의 상승 이후 나온 수치다.
- 관계전문가는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회복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다고 진단했다.

CNN Business 기사

Insider: US Consumer Confidence Improved Again in July 7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다시 회복

- 오늘 화요일 발표된 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두달치 연속 상승 후에도 상승한 것이다.
- 소비자신뢰지수는 6월의 110.1에서 7월에 117.0(1985년도=100)으로 다시 상승했다.
- 또 현재 비즈니스와 노동 시장 조건에 대한 소비자들을 평가를 반영하는 이른바 현재 여건 지수는 6월의 155.3에서 7월에 160(1985년도=100)으로 상승했다.
- 소득, 비즈니스,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지수는 80에서 88.3으로 상승했다.
-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더 낙관적이며, 이는 낮은 인플레이와 타이트한 노동 시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확신이 낮지만, 연말 이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nsider 기사

Bloomberg: Who Wants to Keep Hiking Rates and Who Doesn't? Breaking Down the Fed's Views 연준 관리층 누가, 금리 인상 관련 이견 보이는가?

- 금리 인상 여부 입장에 대해 연준 안에서 이견이 깊어지고 있다.
- 매파는 긴축을 준비하면서 인플레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비둘기파는 일자리 창출을 좋은 쉬운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세번째로 중도파가 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심할 경우 그동안의 단합을 흐리게 하고, 연준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매파는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와 세인트루이스 중앙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중앙은행 총재 등이다.
- 현재 파월 의장은 중도파를 이끌고 있다. 부의장으로 지명된 Philip Jefferson, 뉴욕중앙은행 총재 등이다.
-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빨리 금리 인상을 끝내고 싶어하는 이른바 비둘기파는 애틀랜타 및 시카고 중앙은행 총재등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FDIC Scolds Banks for Manipulating Deposit Data**
FDIC, 은행들에 예금 데이터 왜곡 행위 경고

- 캘리포니아 SVB가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의 예금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은 돈을 인출했다. 그 후 수 주 동안에 수십 개의 은행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 관련 수치를 축소했다.
- 이와 관련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미국 은행들에게 예금 수치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뱅크오브아메리카, 헌팅턴 내셔널 뱅크가 무보험 예금 수치를 가장 많이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FDIC에 제출한 은행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 이 저널은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후에 총 47개 은행이 12월 31일 현재 무보험 예금 수치가 총 1천9백80억달러 낮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리콘 밸리 은행(SVB)의 경우 연말에 예금중에 88%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 FDIC는 은행들에 보낸 서한에서 보험에 가입한 예금만 보험 예금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정 은행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다.

WSJ 기사

WSJ: Stock Market Shrugs Off Recession Signals as Rally Builds
주식 랠리로 침체 신호 떨쳐 내고 있다

- S&P500 지수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작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물론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 안심하기 힘든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심스런 이유로는 우려스런 경제 신호, 높은 주식 밸류에이션,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 그런데 S&P500 지수는 애널리스트들이 2023년 기업 수익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9% 상승했다.
- 보스턴 파트너스의 글로벌 마켓 리서치의 디렉터인 Mike Mullaney는 “현재 증시에서는 악재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 투자자들은 연준이 향후에 금리를 더 인상할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WSJ 기사

WSJ: Facing Big Storm Losses, Insurers Aim to Boost Rates
대규모 재해 손실로 보험사들 보험료 인상 추진

- 이같은 보험료 상승 이유는 폭풍우와 해일 등으로 주택과 자동차가 피해를 입으면서 재단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리와 교체 비용이 늘기 때문이라는 것.
- 한 예로 보험사Traveler는 여러 주에서 일어난 강풍과 폭풍으로 인해 4월부터 3개월간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올해 2분기 재난 손실의 작년 동기의 7억4천6백만달러에서 15억달러로 거의 두배 증가했다. 올스태이 보험사도 마찬가지.

WSJ 기사

[뉴욕]**Bloomberg: The Hottest Office Market in America Is ... Midtown Manhattan?****미 최고 인기 오피스는 맨해튼 미드타운?**

-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때문에 이곳 지역의 공실률은 상승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맨해튼 웨스트 사이드에 들어선 빌딩 덕분에 전체적인 입주율은 상승했다.
- 특히 이 기간에 순 유입을 살펴보면 인상적인 곳이 3백30만 평방피트의 맨해튼 다운타운 이라는 것이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순 유입은 브루클린, 내슈빌, 잭슨빌, 버지니아주Fredericksburg 등에 뒤이어 7위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인상적인 수치라는 것이다.
- 그러나 많은 맨해튼 오피스 빌딩이 1. 예전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2. 사무실이 많이 비워있고 꽤 비어 있으며, (3. 지속불가능한(unsustainable) 부채 부담도 안고 있다는 점이다.

Bloomberg 기사

NYT: Tech Firms Once Powered New York's Economy. Now They're Scaling Back.**테크 기업들 한때 뉴욕 경제에 활력소 였지만**

-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지난 20년 동안 테크 기업들은 수천 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만 평방피트의 사무실 공간으로 늘어나면서 뉴욕 경제의 활력소가 되었었다.
- 그러나 이제는 기술 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뉴욕 경제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 관련 자료 따르면 작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기술 업계는 38만6천명 이상을 해고했고 이에 따라 사무실 공간 수백만 평방피트도 사라졌다.
- 뉴욕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뉴욕에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기업 CEO와 창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 기사

[오일]

CNBC: Goldman Sachs expects 'all time high' oil demand to spur large deficits, boosting prices**Goldman Sachs “사상 최고 수요로 유가 상승될 것”**

-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단기적으로 원가가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 3분기에는 공급이 석유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해 하루 약 200만 배럴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의 석유 연구 책임자인 Daan Struyven가 말했다.
- 그는 브렌트유가 연말까지 배럴당 86불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배럴당 80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CNBC 기사

[반도체]

Bloomberg: Chip Industry Sees Labor Shortages Threatening US Expansion Plan**칩 업계, 노동력 부족으로 미국내 확장 차질 우려**

- 반도체 업계가 미국 칩 경제를 부양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국 내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자 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반도체 산업 협회에 따르면 칩 제조업체들은 2030년까지 약 1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학위 수료 비율을 예측하면 예상되는 일자리 중 약 58%는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반도체 회사들은 오랫동안 직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예시로 지난주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는 노동력 부족으로 애리조나 시설 생산이 연기되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IMF Lifts World Growth Outlook on US Stability, But Risks Linger**IMF, 세계 성장 전망 상향 조정... 위험성 여전**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미국이 디폴트를 피하고 미국과 유럽이 은행 위기로 가지 않아 세계 경제 위협이 줄었

기 때문이다.

- IMF는 이번주 화요일 2023년 세계 국내총생산이 3%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3.5% 성장률보다 둔화된 수치이지만, 지난 4월의 2.8% 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 “최근 미국 부채 한도 관련 갈등 상황이 해결되고, 올해 초 미국과 스위스 은행권 혼란이 해결되면서 금융 부문 혼란의 위험성이 감소됐다”며 “이는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위험을 줄인 것”이라고 IMF 관계자가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The Economist: Why Walmart is trouncing Amazon in the grocery wars 월마트, 식료품에서 아마존 앞서는 이유

- 월마트 매장은 약 4천 7백 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아마존은 530개의 홀푸드, 44개의 아마존 프레시, 22개의 아마존고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식료품을 구매하기 전에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장 수가 적은 아마존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인 90%가 월마트에서 10마일(16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 게다가 월마트의 온라인 매장이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월마트의 온라인 매출은 820억 불이었다. 이는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 매출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 리서치 회사인 MoffettNathanson에 따르면 Amazon Fresh의 제품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 배송 속도는 월마트와 아마존이 서로 비슷하다.

The Economist 기사

Bloomberg: Amazon Will Make Some Employees Relocate for Return to Office 아마존, 사무실 복귀 위해 일부 재배치

- 관계자에 따르면 아마존이 일부 회사 직원들에게 부서 재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주일에 3일은 사무실에서 근무시키려는 목적이다.
- 재배치 대상과 시기는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직원이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대면으로 함께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협업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아마존 대변인이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TikTok's Next Plan for U.S. Dominance: Selling Made-in-China Goods**TikTok "미국에서 중국산 상품 판매한다"**

- 틱톡이 미국에서 중국산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했다.
- 중국의 제조업체와 판매자를 대신해 의류, 전자제품 등의 상품 보관 및 배송을 할 예정이다. 또한 마케팅, 거래, 고객 서비스도 처리할 예정이다.
- 틱톡은 현재 사용자가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하나의 페이지로 통합하고 있다. 아마존과 같은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WSJ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인플레이션 싸움 승리선언 준비 안된 연준..."임금·물가 우려 여전"****WSJ "연준의 다음 단계 예측 어렵고, 임금상승 놓고 시각 갈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해 3월부터 10차례 연속 인상해온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올해 두 차례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이후 미국 노동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큰 폭 둔화했지만, 이번 주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임금과 물가 상승이 경기 하강 없이 충분히 완화될지에 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

